

대전문화재단 박강수초대 대표이사

<뉴스의 인물> “과학과 문화예술이 하나된 로맨틱 대전을 꿈꾼다”

2009년 10월 25일 (일) 20:56:52

정래수 ✉ rsjeong@dynews.co.kr

“문화와 함께 사는 나는 행복하다”를 외치며 지역문화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박 대표는 “대전시민들의 문화 향수가 무엇이고, 예술인들이 어디서 어떤 과업을 하고 있고 애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문화재단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에 노력을 기울리겠다”고 강조한다.

문화재단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등 8개 시·도에 설립돼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를 가져왔으며 지난 6월에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11월 6일 정식 출범한다.

앞으로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 각종 문화축제 관리 및 지원, 국가나 시가 위탁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여러 방면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잘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대전의 미와 꿈을 문화예술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겠습니다.”

박 대표는 지역 문화계의 현실에 대해 “대전 문화 예술의 새로운 아이콘 개발이 필요하다”고 운을 똬 뒤 “대전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토속문화가 있다. 아직도 채취가 남아있는 구도심 문화 거리, 에너지가 넘치는 둔산 신도심, 온천휴양지인 유성, 그리고 과학연구단지 등 다양하고 질박한 문화들이 있지만 서로 분절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이들 문화간의 유기적 소통을 이뤄



주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의 의미와 같은 문화적 통합, 정체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이제는 문화적 주체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 간의 소통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지론이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 사회에는 아직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보듬어주는 나눔의 정신으로 문화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내년 정월 대보름에는 문화 예술인의 날을 지정해 신년 교례회를 열고 인명록도 만들어 교류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앞에서 밝힌 ‘재단의 구심체 역할’과 같은 맥락이다. 바로 재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문화공동체’를 지역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문화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대전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평생을 교육과 시민사회운동을 위해 헌신해 왔다.

강원도 평강이 고향인 그는 배재중·고를 거쳐 고려대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의 조지워싱턴대에서 수학한 후 학계에 입문, 경기대 기획실장, 경상대학장, 경영대학원장을 거쳐 배재대 총장에 올라 배재대학교를 대전의 명문 사학으로 끌어 올렸다.

박 대표는 배재대학교 총장 재임 시 최초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 교육매체원인 멀티미디어센터를 설립해 화상강의를 시작했다. 또 대학 개혁에서 3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만들어 가면서 정보화 명문대학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1999년 5월 완공된 배재대 21세기관은 지하에 최첨단 시설의 스포렉스 홀을 갖추고 게다가 아름다운 건축미까지 겸비한 대전의 명 건축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은 마치 불도저를 연상시키는 박 대표의 강한 추진력과 정신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주변의 평이다. 또한 8년간 총장을 연임하는 원동력이 됐다.

박 대표는 또 6대와 8대 (사)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재임기간(8년) 동안 그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밝고 바른 미래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을 돌며 자신의 생각을 설파했다.

칠십 평생동안 술 담배 한번 해본 적 없는 ‘바른생활맨’이다. 지금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선다는 그는 40대 못지 않은 체력을 자랑한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열정과 꿈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일을 꼭 이루고 만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에 꼭 오른다.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는다.

문화의 홍수 시대에 차별화 된 작품과 공연으로 과학과 문화예술이 하나되는 도시. 로멘틱 대전을

꿈꾸는 박 대표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사업, 지역예술가가 주인공이 되는 예술사업,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사업 등에 힘을 쏟아 안과 밖이 조화되는 이상적인 지역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정래수

.....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창닫기